"이야기 회사 차렸습니다"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제2532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어깨 두드린 매팅리

생존걸린 제약사 의사처방에 목매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⑨또 다른 슈퍼 갑 병원 의사

#1 지난 2012년 2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인턴에게 의약품을 무단으로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상사례이라는 명목 아래 선배의 이름으로 멈춤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다. 또 같은 해 8월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 내 고각소리함에 민원을 넣었다. 정형외과 교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전공의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사건은 병원 안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심중에 처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을'의 위치에 놓인 의사들이 아직도 수두룩한 것이다.

#2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동아ST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대한 추징형을 선고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아ST가 검찰과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회원들에게 동아ST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제품 처방을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벌대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소지가 명확한 담합이다. 하지만 '의사-갑, 제약사-을'이라는 공식이 지배하는 갑을 관계라 제약업계는 기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병원과 제약사 간 갑을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불구 갑질횡포 여전
인턴<전공의<펠로우<교수 철옹성도 문제

◆피라미드 속에서 사는 의사들

사실 보건의료계, 그중 병원과 의사의 갑을 문화는 병원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이 땅에 의대가 들어선 후부터나 꽤 오래된 사실이다. 즉 같은 흰 가운을 걸치고 있지만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는 ▲인턴 ▲전공의 ▲임상강사(펠로우) ▲교수가 피라미드식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직급 때문인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교수 아래에서 전공의와 임상강사들은 을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인턴들에게 또 다른 갑이 된다.

특히 '펠노예'라 불리는 임상강사는 수술 어시스트, 회진과 같은 본연 업무는 물론 지도교수의 논문작업과 잡무를 모두 떠맡아 처리한다. 심할 경우 교수실 청소와 운전기사 노릇까지 할 때도 있다. 그래서 펠노예라고 명명된 것.

문제는 이 피라미드식 갑을 관계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시점에서 대학병원의 교수 자리, 개원의로서의 성공까지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도교수의 입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교수라는 말이다.

한 전공의는 "힘들어도 선본 노출을 꺼려서 문제 해결은커녕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묵인된 관습으로 인해 약자가 더욱 약해져 스스로 이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영업사원 자살까지

이와 함께 병원과 의사들은 제약사에 엄연한 '슈퍼 갑'이 된다. 제약사의 의약품을 써주는 주체가 의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모시게 되고 이런 관행이 리베이트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 있어 병원과 의사는 회사의 매출과 생존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병원과 의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온갖 갑질을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안 나선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병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쌍벌제 도입을 건의한 한미약품이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한미약품의 의약품 처방을 거부했고 한미약품은 당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갑을 관계를 재확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대형병원들은 올해 1월 제약사에 공문을 보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이다. 약가를 최대한 낮춰서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병원의 전략으로 제약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해당 병원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마도 병원·의사와 제약사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리베이트 문제와 매출·영업 현실 등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공공연하게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 집단이라는 슈퍼 갑의 존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병원·의사와 제약사 간의 갑을 관계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3면에 계속>

지구촌 빈곤아동 응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설 초등학교에서 열린 제8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발대식에서 어린이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조대형 지구본에 지구촌 빈곤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뒤 학교로 되돌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뉴시스

금형기술사 월평균 756만원 받는다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많은 한 달 평균 임금을 받는 분야는 금형기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 3년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률 등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취업률 등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금형기술사 종사자의 한 달 임금은 756만1837원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도 각각 100%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금속제련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월평균 임금이 745만2331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은 95.2%, 90.0%를 기록했다.

3위는 조선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조사됐다. 조선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 달 임금은 713만2029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은 각각 100%, 80%를 기록했다.

서비스 종목 자격증 중 가장 높은 한 달 평균 임금은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으로 상위 20개 자격증 가운데 유일하게 서비스 분야다. 1급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임금은 690만1684원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사 중에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가 한 달 평균 654만1375만원을 받았고, 기능장 중에는 '제선기능장'이 710만1736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제강기능장, 원자력발전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압연기능장, 차량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등이 평균 임금 상위 20개 종목에 들었다. /윤다혜기자 ydh@

한-캐나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몽준·이혜훈 무슨 얘기했나

어제 카페 회동…빅딜설에 "경선 룰 논의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전 광화문의 모 카페에서 당내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보좌관도 수행하지 않은 채 둘만의 만남이 진행돼 모종의 '빅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10일 민주당은 '정몽준-이혜훈 빅딜설'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이 최고위원의 주소가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로 나와 있다"며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서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서초갑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갑자기 정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로 이사를 해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최고위원이 정 의원과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단일화하고 대신 동작지역 보궐선거를 지원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6·4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 룰조차 확정되지 않자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물었던 정 의원 측근은 "정 의원께 확인해 보니 후보 등록 마감이 15일까지 늘어난 마당에 그때까지라도 당내 일정과 룰을 정하고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경선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을 애초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데 대해 "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누가 누구의 내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또 다른 서울시장 공천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 측 역시 "두 분의 만남은 보좌관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며 "공천 신청 마감일을 연기한 것에 이 최고위원도 불만이 많았다. 이 문제와 '2:3:3:2' 경선 룰을 조기 확정하고 선거연대와 함께하는 권역별 순회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은 1월 23일로, 당시 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다. 민주당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끝까지 경선을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3:3:2' 경선 룰은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있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경선 승리자를 뽑는 것으로,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선 룰을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보좌관도 수행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만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11일 오전 광화문 모 카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의협, 명분인가 이기주의인가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레저부 기자>

의료계가 지난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총파업의 여파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0일 파업 참여율을 놓고 벌이는 진실 공방이 가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파업 참여율은 20.3%인 반면 의협의 추산율은 49.1%다. 다른 방식으로 집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8.8%의 차이는 그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차이는 누구에게나 의문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진실 공방과 의문은 의협과 노환규 의협 회장의 신뢰성에만 큰 타격을 줄 뿐이다. 지난 7일 청와대의 중재안 거부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총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노 회장은 그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과 대한약사회 등도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이미 조언한 바가 있어 집단 이기주의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가를 올리기 위해 파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약분업 시행 때 수가가 7.08% 오르는 등 의사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날 때는 어김없이 의사들이 높은 수가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전면 휴진을 앞둔 총파업보다는 자신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먼저 마주 봐야 할 것이다.

신흥국 금융 먹구름 몰려오나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또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 조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설은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거쳐 베네수엘라·태국까지 이른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고물가와 외환 보유액 감소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국에서도 반정부 시위와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아시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주식·채권시장도 신흥국 금융 불안에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펀드의 자금 흐름과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상황을 자신했던 금융 당국의 입장이 변한 것이다.

올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1조9000억원)와 채권 투자(-1조2000억원)는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급해진 금융 당국은 부랴부랴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긴장 모드'로 돌아섰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신흥국 불안이 터질 때마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예전과 다르게 확산되고 급변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뒷짐지고 방관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병원들 의약품 늑장 결제…평균 8개월

<1면에서 계속>

◆누구에게나 갑이 되는 병원

또 병원은 도매상을 상대로 언제나 '늑장 결제'를 일관해오며 갑의 위치에서 군림해왔다. 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값을 받아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8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결제를 하는 관습이 만연해 있다. 올 2월 이를 개선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고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도매상이 병원에 항의할 수는 없다. 결제를 받지 못하면 도매상은 생존을 위협받지만 참고 넘어가야 다음에도 의약품을 공급하는 갑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은 의약품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 이자 소득을 부당이득게 챙기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순간 환자는 철저한 을이 된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을', 환자가 '갑'이 돼야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고객인 환자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선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나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해서다. 정부가 출범시킨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강제 조정이 아닌 임의 조정에 그치고 있어 몸줄이 없는 환자는 언제나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게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봄맞이 꽃축제 11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이벤트 매장에서 열린 새봄맞이 화훼축제에서 아이들이 화분을 들고 웃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헤어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

"다시 사귀지 않겠다"며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이 범행 3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고려대 2학년 이모(20)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은 같은 과 동기로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으나 이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괴롭혔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7일 이씨가 하교 근처 A씨의 하숙집 앞에서 기다리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A씨를 따라서 방에 들어갔다. A씨가 이씨에게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소리치자 순간 격분한 이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재작년 초에도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김포 주변 고도완화 "이상 무"

연구용역 결과 "비행 안전 영향없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해발 119m(아파트 26층 높이)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고도 제한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노현송(사진) 강서구청장은 11일 "범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는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항공학적 검토는 김포공항에서 1.5km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 계기 비행 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 안전 유무를 따졌다.

연구 결과 마곡지구는 해발 기준 119~162m까지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준에 따른 기존 계기비행 절차에 관한 연구에서도 176~209m까지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 표면(활주로 반경 4km 이내, 해발 57.86m) 제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적 검토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고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고도 제한 완화를 청원하는 30만 주민 서명운동도 마무리됐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서명부를 제출해 강서구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진근기자 mk.m@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상철

발레리노 니진스키 출생

'춤의 신'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러시아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1890년 3월 12일 태어났다. 17세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발레학교를 졸업한 뒤 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단에 들어가 파리에서 첫 공연을 가진 후 천상적인 도약과 뛰어난 연기로 세계 최고의 남성무용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불과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용계에서 은퇴하고 말았다.

밝아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탐방로 조성공사 완료 "역사 숨결 느끼는 마을 변화중"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2차년도 '아미 구역' 마무리 사업으로 시행한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탐방로 (이하 '탐방로') 조성공사가 완료돼 산복도로의 숨은 보석 비석문화마을이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비석문화마을은 구한 말까지 곡립한 일부 하층 계급의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부산항 개항 이후 일본인 거류민단이 들어오면서 부산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일본인 묘지를 옮겨 집단 묘지촌이 형성됐고 화장장이 만들어졌다.

1920년대는 높은 경제가 형성되면서 근대화를 갈망한 사람들이 이주해왔고 해방 이후 6.25 피란민 등이 대거 이주해오면서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판잣집을 지을 때 묘비를 담, 주춧돌 등 건축 자재로 사용케 그 일대가 비석문화마을로 불렸다. 현재에도 마을 곳곳에 흔적이 남아있다.

토성 지하철역을 시작으로 2km에 걸쳐 조성된 탐방로는 토성 지하철역 앞 탐방로 안내판을 비롯한 20여 개 '안내 간판'이 곳곳에 설치돼 비석문화마을뿐만 아니라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산의 대표적 산복마을인 아미동의 구석구석과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감천고개 입구에는 길이 15m, 높이 6m의 '비석문화마을 마을지도'가 자리 잡았다.

마을지도에는 ▲탐방로 코스 ▲최민식 갤러리가 있는 아미 문화학습관 ▲각종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찻집 예술체험장 등 인근 가볼 만한 명소 등이 표시돼 있다.

마을지도 옆은 아미동 비석마을의 캐릭터인 '석이' 로고와 함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의미 등을 기술한 안내 문구가 있다. 또 마을지도 맞은편 아랫부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비석마을을 탈피하고 산복도로의 희망과 변화된 마을의 이미지를 담은 26m의 '디자인 벽화'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벽화를 따라 30m 정도 내려오면 비석문화마을이 나타난다.

비석문화마을 어린이놀이터 밑 버스승강장 옆에는 비석문화마을의 중심 지역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5m 높이로 세워졌다. 비석문화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 피란민이 비석을 건축 자재로 사용한 대표적인 장소 3곳을 선정,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마을 중간 지점인 노상 주거지 주차장 옆에는 방문객들의 눈을 시로잡은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설치됐다.

이곳서 바라보는 비석마을은 천혜의 경관 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비록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했지만 많은 장점이 있는 마을로 주변 경관은 막힘 없이 틔어있다. 특히 남·북항 일대와 용두산, 자갈치 등 원도심 전체와 검푸른 바다의 조망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산복도로 탐방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탐방로 조성공사 준공으로 인근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관광 루트가 개발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고 소외된 비석문화마을이 비록 아픈 역사일지라도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마을 사람들이 찾는 마을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해부대 14진 귀환 "우리 딸 많이 컸네" 지난해 9월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 14진 최영함이 6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11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열린 귀국 환영식에서 청해부대원이 가족과 재회하고 있다. 최영함은 파병 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국내외 선박 1?척을 안전하게 근접 호송했고, 630척의 선박에 대해 안전 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뉴시스

현금수송차 털이범은 퇴직자

사건 발생 하루만에 검거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거하던 현금수송 차량이 사라진 것은 10일 오전 3시2?분께.

현금수송 대행업체 직원 2명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요금소 사무실로 통행료를 수거하러 들어간 사이 현금수송 차량인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가 없어졌다.

비상벨이 울리자 직원들이 다급하게 사무실 밖으로 나왔지만 차량은 이미 회차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손을 쓸 새가 없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지 11분 만에 4km가량 떨어진 부산 금정구 청룡동 보호관찰소 앞에서 현금수송 차량이 발견됐지만 수거된 통행료 2억1900만원은 감쪽같이 없어졌다.

경찰은 현금이 많고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폐쇄회로(CCTV)를 피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범행 현장 인근 2곳의 CCTV에서 범인이 차량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장면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빠르게 진전됐다.

범인의 걸음걸이 등이 현금수송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연말 퇴사한 설모(25)씨와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한 설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가족 수사 등을 통해 범인이 서울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10일 오후 검거팀을 급파했다.

그러나 설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면서 수사는 잠시 난항에 빠졌다가 이날 오후 11시께 경찰은 설씨가 공중전화로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해 부근을 수색하다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설씨가 타고 온 쏘렌토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는 탈취한 2억여 원의 돈다발이 고스란히 있었고 이어 경찰은 모텔을 수색해 11일 오전 0시15분께 객실에서 은신 중인 설씨를 붙잡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사건 발생 21시간여 만이었다. /연합뉴스

인제대 공학교육혁신센터 2년 연속 '우수'

인제대학교(총장 이원로)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수행 중인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센터는 현장 참여 융합형 스티브(STEVE) 인재 양성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수립이 뛰어나고,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호하게 수행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인제대는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의 운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참여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제도, 산학협력가족회사(INFACO)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창업 연계형 캡스톤 등 대학에 맞는 특화된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인제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김태환 센터장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3년차 사업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차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하균기자

부산콘텐츠마켓 봉사자 모집

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BCM)는 올해 BCM 행사를 이끌 '2014 자원봉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은 일반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2개 분야에서 모두 70명을 선발한다.

연령, 직업 등 특별한 제한 없이 방송 영상 콘텐츠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일반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부산콘텐츠마켓 홈페이지(www.bcm.tv)에서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e메일(bye0706@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740-9351 /장하균기자

고용·산재 보수총액 17일까지 신고하세요

Q 사업장에서 3월 1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A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장의 전년도 월별 보험료 정산과 동시에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개인별 월평균 보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2013년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총액(일용직·퇴사자 포함)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정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일반사업장은 3월 17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직장인 맞춤카드 '딩딩' 출시

부산은행은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카드인 '딩딩(DINGDING)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딩딩 신용카드는 ▲모든 주유소 ℓ당 60원 할인 ▲대중교통요금 10% 할인 ▲이동통신요금 5% 할인 ▲모든 음식점 10% 할인 ▲쿠팡 및 옥션 등 인터넷 쇼핑 5% 할인 ▲영화관 예매 시 4000원 할인 ▲스타벅스, 뚜레쥬르 등 커피전문점·베이커리 10% 할인 ▲놀이공원 최대 50% 할인 등 폭넓은 할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포~청사포 해안경계철책 철거 부산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철로에 인접한 곳에 설치된 경계 철책과 해안 초소. 부산시는 지난주 합참이 시가 제기한 미포~청사포 해안경계철책 철거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포~청사포 해안구간 1.5km에 달하는 군 해안 경계철책이 거의 30년 만에 철거된다. /연합뉴스

도심 배수지 휴식공간 변신

상수도본부 올해 23곳 추가개방 추진

그동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던 배수지가 개방 후 시민 친화형 휴식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가운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심 배수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배수지는 정화 과정을 거쳐 깨끗해진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연못으로,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상수도본부는 해운대구 좌1동 배수지, 반여2동 배수지, 봉대산 배수지 등 3곳을 상반기 중 개방하고 대티 배수지와 엄궁 배수지 등 20곳을 주민 의견 수렴 후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23곳이 개방되면 이미 개방된 25곳을 포함해 모두 48곳의 배수지가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건강 증진을 위한 시민 친화형 휴식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부산지역 배수지는 67곳이다.

상수도본부는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는 상수도본부가, 배수시설 유지·관리와 청소·안전 관리 등은 담당 구청이 각각 맡는 '관리협약'을 배수지별 담당 구청과 맺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 공모시 최종선정 국비 1억원 확보

부산 의료관광이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 부산' 조성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사업을 공모, 지난 10일 부산을 비롯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뉴시스

'수산생물 방역' 회의 개최

국립수산과학원은 13~14일 수산생물방역센터에서 수산생물 선진 방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지방 방역기관 업무협의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가와 지방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체계적인 수산생물의 방역 체계를 구축, 양식 어업인에게 고품질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품으로 만든 뽀로로 11일 롯데백화점 동래점 6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정크 아트' ...

시장 후보 원전안전 공약 '심혈'

6·4 부산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고리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약 개발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원전 안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표의 향방도 바로 원전 안전과 관련된 공약에서 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3주년을 맞아 고리원전 1호기의 2017년 폐쇄를 선언하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부산 건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 수명이 종료되는 오는 2017년 폐쇄해야 하고 폐로 과정에 원전 해체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이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년을 맞아 정의당 조승수 울산시장 예비후보와 '탈원전 후보 연대'를 제안, 원전 안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할 것과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두 후보는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탈원전 후보'의 전국적 연대를 구성, 원전 폐쇄 전환의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두 후보는 성명문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는 원전 30㎞ 반경 안에 320만 명이 살고 있어 만약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더 이상 경제적이지도, 싫고 친환경 에너지도 아닌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앞서 고리원전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나선 후보는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다.

주일대사 때 대재앙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직접 경험한 권 예비 후보는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첫째가 원전 안전 확보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원전 안전을 유독 강조한다.

그는 "한순간에 3만 명이 죽고 원전이 폭발하는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만일 내 고향 부산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며 "그런데 부산 시민들이 원전 안전에 왜 이렇게 태연할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이것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 가동

부산시는 12월까지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 주민의 자립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 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이하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창조 일자리 프로젝트 관련 교육은 전액 무료로 시행되며 각 분야 교육 이수 후에는 해당 업종에 맞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의 (051)999-5847~5845

거제 아비 폐사원인 부산 기름유출 탓

경남 거제 아비 도래지에서 잇따른 아비 폐사 원인이 지난달 15일 부산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거제 아비에 묻은 기름이 부산 앞바다에서 유출된 기름과 95% 신뢰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지문 감식기법'을 통해 밝혀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거제 앞바다에서 기름에 범벅이 된 채 살아있거나 폐사한 아비가 잇따라 발견되자 거제시와 해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협조를 요청,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12일 환경부와 문화재청, 거제시청, 조류학자 등과 논의해 아비의 구조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제 앞바다 아비 도래지는 남부면과 일운면, 장승포 해안에 이르는 435㎢ 규모로 천연기념물 227호로 지정돼 있다.

아비는 아비과(一科 Gaviidae)와 논병아리과(Podicipedidae)를 포함하는 조류(鳥類)의 한 목으로 바다 물고기를 먹으며 겨울을 난다. /뉴시스

장애아들 업고 매일 등교 '감동'

중국 아버지, 바구니 등 만들어 14km 왕복

장애 아들을 업고 매일 등굣길에 오르는 중국인 아버지의 애틋한 부정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팔·다리와 허리가 굽은 아들 샤오팡(12)을 업고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위쉬캉(40)의 이야기를 전했다.

위쉬캉은 매일 아침 '행군'을 시작한다. 몸이 불편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다. 그는 9년 전 아내와 헤어진 뒤 학교 교육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사는 쓰촨성 이빈시 평이마을 주변의 교육 환경은 열악했다. 아들을 받아주겠다는 학교도 없었지만 걷기 어려운 아들의 등하교에 반드시 필요한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도 없었다.

위쉬캉은 결국 '바구니 버스'를 만들었다. 아들을 바구니에 넣고 등에 매 학교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 아들을 등에 태우고는 학교까지 걸어간다. 지난해 9월부터 벌써 7개월째 바구니 버스 운전사로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들의 등하교를 위해 14km를 걷고, 집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가느라 또 같은 거리를 걷는다.

위쉬캉은 "내 아들은 장애가 있지만 정신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집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평이 초등학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혼자 걸을 수도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열두 살이지만 키가 90㎝밖에 되지 않는다.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바구니에 넣고 등에 멘 채 걷고 있는 위쉬캉. /데일리 메일

하지만 반에서 공부는 가장 잘한다"면서 "내 꿈은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길에서 새끼 식인악어 발견 '화제'

metro Russia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주거지역에서 최근 새끼 식인 악어가 발견돼 화제다.

악어를 처음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이른 아침 동네 쓰레기통 주변을 쓸던 중 기어 다니는 물체를 봤다"며 "처음에는 누군가 내다버린 악어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악어 인형'이 갑자기 눈을 뜨며 꼬리를 퍼덕였다"며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얼마 후 관할 구역 책임자인 루슬란 미트로파노프가 현장에 도착했다. 미트로파노프는 "이 새끼 악어가 [illegible] 크지 않은 애완용 악어 카이만이라 생각하고 애완용으로 키울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레닌그라드 동물원의 확인 결과 몸집이 4m까지 자라는 나일강의 식인 악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어의 이름을 겐나디 루슬라노비치 그라즈단스키로 지었다"며 "그라즈단스키는 이틀 만에 돼지고기를 두 덩이나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끼 악어가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라즈단스키의 향후 운명 역시 결정된 바가 없다. 악어는 조만간 페테르부르크 내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알료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대학생들 노숙하며 기부 캠페인

metro Canada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대학생들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길에서 먹고 자는 이색 캠페인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5일간의 떠돌이 생활'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다. 20~60명의 학생들은 오는 14일까지 길에서 먹고 자며 돈 없이 생활하게 된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충당해야만 한다.

이 캠페인은 몬트리올비즈니스스쿨, 퀘벡대, 맥길대학, 컨커디아대학 등 캐나다 대학 27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몬트리올에서 기부금으로 4만 달러(약 4264만원)가 모였다. 모인 돈은 젊은 노숙자 및 여성들을 돕기 위해 쓰인다.

/브렌느 피우클 기자·정리=권주리 인턴기자

대지진 흔적 사진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휩쓸고 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11일 센다이시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들은 16일까지 전시된다. 지진 발생 3주년인 이날 일본 각지에서는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AFP 연합뉴스

실종 항공기 도난여권 이란에서 탑승권 예약

항공기 기체 수색 별무 성과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도난 여권으로 탑승한 승객 2명의 항공권은 이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돼 태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의 여권을 훔쳐 사용한 탑승객 2명의 항공권이 이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태국 경찰이 전했다. 이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도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 2명의 항공권은 '알리'라고 불리는 이란인이 예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럽 언론은 알리가 예약한 항공권으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유럽 밀입국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 해 2200만 명 이상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연간 1000여 개의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법 집행이 허술해 여권 등 신분증이 자주 위조된다.

남중국해에서 사라진 항공기의 기체 수색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 해군이 최근 해역에 첨단 구축함을 파견, 정밀 수색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다.

보반 뚜언 베트남 인민군 참모차장은 "기체 수색에 성과가 없어 수색 범위를 사고기의 예상 항로 동쪽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63.37 (+9.45)	코스닥 547.18 (+5.49)
금리 2.88	환율 1065.00 (-1.20)

뉴스 & 뉴스

롯데마트 '도다리 회' 할인
1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도다리 세꼬시와 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두 제품을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잔액 1년만에 감소

● 가계대출 잔액이 12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1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월 687조1864억원보다 1조9957억원 감소한 것이다. 전월 대비 액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계절적인 요인과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이공계연수기관 38곳 지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는 2014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위해 연수기관 38곳을 지정하고 전문 기술연수에 참여할 연수생 2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생 모집은 대졸자(2년제 이상)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 이공계 인력과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된다.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게 되며 연수 기간 동안 월평균 36만원가량의 연수 수당을 지급받고, 기업연수를 지방소재에서 받는 경우 월 2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직대	김옥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자센터	(02)721-9865

2001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1920조 시장' 관세 뚫린 한국차

8년8개월 협상 끝 캐나다와 FTA 타결…축산농가 타격 불가피

1조8000억 달러(약 1920조원) 세계 11위 거대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8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한·캐나다 FTA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줬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여년에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돼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이 외에 관세율 6%인 자동차 부품은 3년 내, 7%인 타이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져 자동차 관련 품목이 전반적인 수혜 품목으로 분류된다.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원산지 기준에 한·미 FTA의 원사 기준 방식(얀포워드)에서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입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밖에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 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농축수산물 부문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 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하지만 최대 관심 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전기차 '쏘울 EV' 148km 논스톱 기아자동차는 11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글로벌 출시 예정인 쏘울 전기차 '쏘울 EV'를 공개했다. 지난해 출시된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된 쏘울 EV는 27kWh 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148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빠뜨린 연말정산 5월에 신청 기회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전산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 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 마련 공제 폐지, 장기 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 신청 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 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연지기자

NH농협 이달말 우투증권 인수 마무리

우리금융저축·아비바생명 패키지 가격 협상중

NH농협금융지주가 예정대로 이달 말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과 우리금융지주는 우투증권 인수 패키지(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아비바생명)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 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 우리금융의 사외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 지지부진한 우투증권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조만간 임기를 마치는 사외이사 5명은 패키지 방식의 매각을 받아들이면서 헐값 매각의 배임 논란에 민감했지만 새 이사진은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신규 이사진이 가격 조정 등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농협금융은 우투증권 패키지에 1조1000억원가량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두 금융지주 간 시각이 매우 엇갈린다.

농협금융은 이 저축은행 인수가를 40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이 저축은행 인수와 회생에 2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라 농협의 제시 가격을 받아들이면 배임 우려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이 최근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투증권 인수가 확정 단계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초 30여 명의 인원으로 발족한 농협금융의 인수 후 조직통합(PMI) 추진단은 우투증권 인수가 확정되는 대로 향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PMI 추진단에 따르면 우투증권이 자회사로 편입돼도 당분간 농협증권과 별도로 운영되며 사명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인수 기한을 정해놓진 않았으니 이달 말 인수 확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hjkim1@

삼성 반도체 이번엔 '20나노 D램 혁명'

작년 세계 놀래킨 25나노 기술서 진화… 생산성 30% 높여 양산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세계 최초로 차세대 20나노(1나노=10억분의 1m) 4기가비트 DDR3(Double Data Rate 3) D램' 양산에 나선다. 20나노 D램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5나노 D램보다 30% 이상, 30나노급 D램보다는 2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독자 기술을 통해 기존 설비만으로 20나노 D램 미세화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최소형 4기가비트 D램을 본격 양산해 메모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양산에 성공한 20나노 D램에 삼성전자의 신개념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과 '초미세 유전막 형성 기술'이 동시에 적용됐다.

낸드 플래시는 셀(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돼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D램은 셀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적층 구조로 구성돼 20나노 공정 미세화가 더욱 어려웠다.

삼성전자는 이런 D램 공정 한계를 독자 기술인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을 통해 극복해 기존 포토장비로 20나노 D램은 물론 차세대 10나노급 D램도 양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했다.

또 셀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형성하는 물질을 기존 나노 단위에서 옹스트롬(10분의 1나노) 단위로 초미세 제어해 균일한 유전막을 만들어 20나노에서도 우수한 셀 특성을 확보했다.

20나노 DDR3 D램 모듈은 PC에서 기존 25나노 대비 소비전력을 25%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IT업체에 최고 수준의 '초절전 그린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영현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은 "저전력 20나노 D램은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까지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대용량 D램과 그린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해 글로벌 고객과 함께 세계 IT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20나노 D램 삼성전자 제공

중기청, 청년사장 600명 키운다

'창업허브' 대학 5곳 추가

창업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에서 600명의 창업가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건국대·경기대·단국대·순천향대·원광대 등 5개 대학교를 추가 지정해 총 21곳의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402억원)보다 106억원이 늘어난 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선도대학에서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300여 개의 체험형 창업강좌를 개설·운영해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등 대학별로 지역의 창업 거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창업 친화적 학사 구축(창업휴가생, 창업중점교원 육성, 창업장학금),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창업 동아리 육성), 글로벌 벤처창업(글로벌 적정 기술 창업 아이템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자율 특화 프로그램도 연중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선도대학은 24일부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신청하면 된다.

/[illegible]

'유럽 헬스케어' 한자리에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유키연합 주최로 열린 '2014 헬스케어·의료기술 전시상담회'에서 폴란드 드라곤 스키 인체 관계자들이 휴대용 진단 의료 조명 및 스캐너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주 대규모 시위

내일 이통사 제재 맞춰 '영업정지 철폐' 총궐의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제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주들이 13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궐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 협회 성명서 낭독 및 관련 종사자 염설, 요구 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 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 내용을 청와대와 여야 정당,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개사 동시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기기 변경 등이 금지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물통신(M2M) 및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협회는 "이번 이통사의 장기간 영업정지는 30만 이동통신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고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통신 시장의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 제재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된 지 오래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시장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즉각 철회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장기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illegible]

달리는 애플 vs 입는 구글

새 SW 경쟁…카 플레이·웨어러블 제조혁명 중점

글로벌 IT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차세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잇따라 새 제품을 내놓고 있다.

11일 애플은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면 자신의 차를 '기트' 수준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OS) 최신판 'iOS 7.1'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차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 플레이' 기능이다. 카 플레이를 지원하는 자동차에 iOS 7.1이 탑재된 아이폰5·5S를 연결하면 운전자는 핸들을 쥔 상태에서 전화번호부 검색,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및 부재 중 전화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애플 지도를 이용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능은 전용 차량 인터페이스나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 플레이 기능은 지금은 페라리,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의 일부 차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현대 기아차, 혼다, BMW, 포드 등의 신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하루 전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제조업체를 위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2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한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안드로이드의 늪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옷에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재킷'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구글글라스나 삼성의 갤럭시기어와 같은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 손목시계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 덕에 화웨이, 레노버와 같은 중국의 로컬 제조업체들이 일약 글로벌 IT기업으로 도약했듯이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더 많은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SSD 체험하세요 지난 10일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된 '삼성SSD 슈퍼 스피드존' 체험 이벤트에서 대학생들이 기존 하드디스크와 삼성SSD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마곡 '디엠시티' 오피스텔 분양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7-3 4블록에 '디엠시티(the M CITY)' (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디엠시티는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3~59㎡, 전체 1031실로 구성될 예정으로 마곡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황금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을 단지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며, 1km 범위 내 5호선 발산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예정)이 위치해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인근 강변북로를 통한 여의도·도심 등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마곡지구 내 16만 5000여 명을 배후로 원룸 및 투룸형 임대 수요가 풍부하며, 특히 신규 소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 및 인근 가양동 소형 아파트의 노후화의 영향으로 '디엠시티' 스타일 평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기자

케이티렌털 할인 프로모션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렌털 서비스의 경제성 및 편의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위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고객에게 합리적 소비 방식으로서의 렌털 서비스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스톡 사이클링과 소상공인 창업을 돕는 외식업 기기, 디지털 인쇄장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야외 레저 활동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리데이비슨과 스톡 사이클링 렌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지난 2012년 상반기 렌털 서비스 출시 연도보다 384% 성장률을 기록한 할리데이비슨 상품은 2013년식 잔여 모델 기준 36개월 계약 시, 2014년식은 24개월 계약 시 특별 할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로드킹 클래식' 모델을 36개월 조건 대여 시 월 68만8900원에서 월 64만5700원으로 렌털료 부담을 낮춰 이용할 수 있다. 16년 전통의 독일 대표 하이엔드 자전거 브랜드 스톡 역시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서비스 기간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였다. /정재균기자

손가락 빨던 텔레마케터 '생계 후유증'

영업 재개됐지만 아웃소싱업체 큰 타격··카드측 급여보존 소극적

"이번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마련했지만 다음 월급은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카드사와 원만하게 합의해 정부가 정한 70% 정도라도 확실히 줄 수 있길 기다리고 있다."

텔레마케팅(TM) 전문 아웃소싱업체 대표 김모씨는 다음달이 오는 게 벌써부터 두렵다. 봉급날인 지난 10일을 간신히 넘겼지만 여전히 카드사와의 지불 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터들에게 휴가나 단축 근무를 권고하며 TM 영업이 주춤하지 그 피해가 텔레마케터와 아웃소싱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 농협·현대·하나SK카드만 합의

대부분 아웃소싱 업체의 월급날인 지난 10일 농협카드와 현대카드, 하나SK카드만이 아웃소싱 업체들과 상담직원 지불 비용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협카드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치를 지급했다.

현대카드는 상담직원 인건비의 90%와 도급비 80% 이상을 지원키로 해 평균 270만원 수준을 보장키로 했고 하나SK카드도 상담직원 인건비 150만원과 장비·통신비 등 ASP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상담직원의 기존 월평균 급여는 실적수당을 합쳐 2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임대료나 통신비,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상담원 1인 기준 300만~350만원가량을 받아왔다"며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급여 70%를 지급하기 위해선 최소한 하나SK카드가 약속한 1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70% 권고에도 속수무책

앞서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와 각 카드사, 여신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평균 70% 선에서 급여를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고용노동법 46조에 기업이 휴업할 경우 기존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카드사와 아웃소싱 업체 간의 책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일고 있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화 권유로 한 달 100만~200만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임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임금 보전 협상 방안을 논의해서 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mr1208@metroseoul.co.kr

KT·LG유플 회원도 'T쇼핑' 되네 모델들이 SK플래닛의 'T쇼핑'을 사용하고 있다. SK플래닛은 스마트폰으로 TV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며 물건 저렴 혜택을 제공하는 T쇼핑을 11일부터 통신 3사 고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SKT 제공

주택바우처 부정 사용땐 중단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임차료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차 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 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박선옥기자

삼겹살값 30% 급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세먼지의 여파에 이어 나들이철이 본격화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 삼겹살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겹살 100g의 소매 가격은 평균 1800원대로 전년보다 31%가량 올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의 모습. /연합뉴스

해킹 당한 중개사협 거래정보망 6월 교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텐크21'을 이르면 6월부터 보안성을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텐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텐크21의 정보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다행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옥기자

부동산 시장 왜곡하는 '엉터리 통계'

거래량 확인 시차 크고 실거래가 표현 불명확 현실적 대책 수립 방해

주택 거래량을 비롯해 실거래가, 미분양 현황 등 매주, 매월 단위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는 시장 왜곡이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매매 거래 동향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3월 중순에 계약된 물건이라도 신고일에 따라 3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5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근거로 한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1213가구 ▲2월 3189가구 ▲3월 5466가구 ▲4월 6603가구 ▲5월 7677가구 ▲6월 1만237가구다.

정부는 2012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1~2월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과 2월 통계에 잡힌 거래량은 2012년 11월과 12월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1월과 2월에 거래된 주택은 3월과 4월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절벽은 없었던 셈이다.

거래량과 함께 발표되는 실거래가 역시 같은 아파트라도 동과 층, 향에 따라 가격이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승', '강보합'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통계는 수요자들이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회복됐다고 착각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오인할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계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특성상 하나의 지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나 수요자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수요 사이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사)한국오페라단 창단 25주년 기념
제5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
팜므파탈 살로메의 치명적 매력!! '일곱개 베일의 춤'
SALOME
오페라 살로메
2014. 5.2(Fri)~4(Sun)
2(Fri)PM 7:30
3(Sat)PM 5 / 4(Sun)PM 3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KOREA OPERA GROUP
당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단하나의 오페라 살로메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의 미래 도시 2114년 !!
SAC티켓 예술의전당 02-580-1300
인터파크티켓 1544-1555
옥션 티켓 1566-1369
주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예술의전당
주관 사)한국오페라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에그 바·초콜릿 집에서 뚝딱

간식 만들때 도움되는 용기·가전·믹스재료들

바빠진 개학 시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엄마들은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이런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빠르고 간편하며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월드키친은 코렐 스냅웨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보관부터 요리, 세팅까지 용기 하나로 모두 가능한 스토리지웨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선보였다. 코렐 스냅웨어는 천연 유리 소재인 비트렐 유리를 사용했다. 이 유리는 화학적 가공 과정 없이 3종 유리를 열과 압력만으로 압축해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해 전자레인지·오븐 등 열을 가하는 조리 도구에 넣고 돌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밀폐용기와는 달리 꽃무늬 등 예쁜 디자인이 사용돼 오븐에 요리를 한 후 바로 테이블에 꺼낼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사냐 재료를 미리 보관해두었다가 오븐에 구워 바로 테이블에 낼 수 있는 등 바쁜 엄마들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끄는 가전제품들도 있다. 골리 '에그바스터'는 텀블러처럼 생긴 에그마스터에 달걀 1~2개를 톡 깨서 넣으면 5~8분 후 핫바 형태로 익은 에그핫바가 자동으로 완성돼 쏙 올라온다. 사용이 간편해 간단한 달걀 요리로 바쁜 아침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

식품업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고자 하는 엄마들을 위한 믹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믹스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와 설탕 등 다양한 재료를 미리 알맞게 배합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간편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케이크·초떡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출시된 삼양 큐원 홈메이드 초콜릿믹스는 기존 빵류 믹스에서 벗어나 고급 생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홈메이드 제품이다. 초콜릿믹스 1봉(150g)에 우유 40㎖를 넣고 저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간 조리한 후 냉동고에 1시간 동안 굳히면 완성된다.

/정혜은기자 hyeun0404@metroseoul.co.kr

제주신라호텔 "봄여행 옵서예"

스프링 모멘트 패키지 S카 무료대여 등 알차

제주신라호텔은 제주의 자연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스프링 모멘트(Spring Moment)'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이용 고객에게 호텔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S카(최대 6시간)를 타고 제주의 해안가와 자연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호텔 6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 콘셉트의 라운지 S에서 다양한 책을 보며 밤 12시까지 음료와 다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제주신라호텔 3층 테라스에서는 매일 밤 와인 파티가 열린다. 패키지에는 테라스 와인 파티 2인 입장권이 포함돼 있다. 은은한 조명과 플라워 데커레이션이 일품인 테라스에서 야자수가 우거진 야외 스파 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일 밤 12시까지 야외 온수풀과 자쿠지에서 달빛 수영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숨비 스파 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더 파크뷰 조식 2인 등 풍성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장학인기자

100% 청포도 발효 식초 CJ제일제당의 '쁘띠첼 미초 청포도'가 11일 오전 중구 동호로 CJ제일제당센터에서 100% 청포도 발효 식초 음료의 시음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쁘띠첼 미초 청포도의 출시와 봄철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맛있는 100% 과일 발효 식초를 마시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CJ제일제당 제공

화이트데이엔 '남편보다 김수현'

스미후루, 주부 1000명 설문

국내 주부들이 화이트데이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으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연 '도민준'을 연기한 김수현(사진)을 1위로 꼽았다.

글로벌 청과기업 스미후루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40대 주부 1058명을 대상으로 '화이트데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화이트데이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으로 김수현이 절반에 육박하는 48%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드라마 '감격시대'의 김현중(27%), '상속자들'의 이민호(11%), '쓰리데이즈'의 박유천(5%), '태양은 가득히'의 윤계상(2%)이 2~5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별인 결혼 후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20대 주부는 10명 중 8명(82%)꼴이었나, 30대 주부는 응답자의 절반(56%)이 '있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선물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주부의 비율이 35%였다.

주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의류 및 액세서리'(47%)를 첫손에 꼽았다. 30대 주부 역시 '의류 및 액세서리'(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40대 이상에서는 '여행 및 자유 시간'(30%)이라고 답한 주부가 가장 많았고 명품 잡화, 용돈 및 상품권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일기자

나홀로 파티 달래 줄 '화려한 들러리'

저도수 팩와인·냉동케익 화이트데이 싱글족에 딱

싱글족이 늘면서 타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데이처럼 연인들의 날이 다가올 때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마음을 어찌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솔로족들의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고품격 식음료를 만나보자.

와인은 분위기를 내고 특별한 기분을 맛보고 싶을 때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혼자 먹기에 한 병의 와인이 부담스러운 싱글족에겐 작은 사이즈의 팩와인을 추천한다.

국내 최초 팩와인인 보니또 코리아의 '상그리아'(사진)는 4.5도의 저도수로 술에 약한 여성들도 칵테일처럼 가볍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제품은 '상그리아 화이트'와 '상그리아 레드'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 '떠먹는 피자 핏벅시 칸칼라피뇨'는 부드럽게 씹히는 도우에 풍부한 치즈와 멕시칸풍의 소스, 매콤한 할라피뇨로 맛을 낸 떠 먹는 형태의 신개념 피자 요리다. 포크나 스푼으로 간편하게 떠 먹을 수 있는 파스타 형태로 전자레인지에 3분간 조리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삼정원의 자연해동 냉동간식 '미니소프트케익'은 냉동 보관해도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먹어도 촉촉하고 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정영일기자

수줍음 벗은 레이스 과감한 워킹

올 봄·여름 패션 핫아이템 로맨틱한 스타일링 요령

어느덧 꽃샘추위만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봄이 기다리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즌 트렌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의류 브랜드들의 2014 봄·여름 시즌 런웨이를 보면 여성복의 경우 로맨티시즘이 강조된 레이스(LACE) 아이템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은 레이스 톱과 약시 스커트를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발망(BALMAIN)에서는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 롤은 매치해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했다.

◆독스템 컬러로 레이어링 연출

보통 레이스 하면 하얀 색상을 떠올리지만 이번 시즌에는 박스텝 컬러와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또 일반적으로 레이스 아이템의 경우 보디라인에 스타일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레이어링에 있다고도 조언한다. 여성의 경우 레이스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에 따라 로맨틱한 룩은 물론이고 시크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레이스를 톤 다운된 색상과 매치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으며 과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만 피하면 레이스 스타일링에 있어서 반은 성공이다.

이지안 한섬 시스템(SYSTEM) 마케팅실 대리는 "레이스 아이템은 숨기기보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단순 스타일리시해 보이며 올 봄 트렌디한 룩을 완성하기 위한 아이템이다"고 말했다.

◆튀는 믹스매치·부담 줄인 포인트

이와 반대로 무난한 레이스룩이 지겹다면 믹스매치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레이스 원피스를 레더 재킷과 매치해 펑키한 감성을 연출하거나 레이스 스커트에 스웨트 셔츠를 입어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폴앤조(PAUL & JOE)가 2014 봄·여름 컬렉션에서 보인 화이트 레이스 톱과 데님 셔츠의 조합도 눈여겨볼 만하다. 평소 캐주얼한 옷은 많이 입더라도 레이스와 매치해 입으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만약 레이스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소매나 밑단에만 포인트로 레이스가 들어간 옷을 선택하면 된다.

단 액세서리나 가방은 컬러감이 있는 것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연출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메이크업 역시 수수하고 청순한 메이크업보다는 입술이나 눈에 포인트를 준 컬러 메이크업이 포인트 레이스와는 어울린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민희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발게임텍(좌)·폴 앤조에서 선보인 레이스 패션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 15일 디큐브 플라자 '손짓'

아일랜드 협회(www.iak.co.kr)는 제14회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가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신도림 디큐브 플라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는 아일랜드 국가에 기독교를 가져온 성인을 기리는 행사로 아일랜드 전통 무용과 인기 록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 펼쳐질 전통 무용 공연에서는 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아일랜드의 독특한 스포츠인 게일릭 축구를 서울 게일스 게일릭 축구팀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아이리쉬 마을'도 열린다.

/정혜인기자 hyein0404@

서울우유 디저트 발효유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봄을 맞이 프리미엄 디저트 발효유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러뷰(이하 러뷰) 5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러뷰 5종은 딸기·애플캐롯·오렌지자몽·사과·블루베리 등 과일 고유의 색상을 담은 잼과 요거트를 투명 컵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상단에는 흰색 발효유를, 하단에는 과일 잼 색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먹음직스럽게 식감을 연출했다. 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만든 100% 국산 원유와 분유를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다.

이창진 서울우유협동조합 발효유마케팅팀 팀장은 "이번에 선보인 5가지 과일 맛 외에도 다양한 디저트 발효유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제품 라인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뷰티박스 2000원에 증정

배스킨라빈스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구매하면 시크릿 뷰티박스를 2000원에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시크릿 뷰티박스는 겟잇뷰티박스 by 미미박스가 엄선한 최신 화장품 4종과 미미박스 5000원 할인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모션은 각 매장 내 준비된 뷰티박스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행사 참여 시 해피포인트 적립 및 타 쿠폰, 타 행사, 제휴 할인 등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모바일 쿠폰은 사용 가능하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10종도 새롭게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봄 가득 숲 속 케이크'와 '해피캐슬'은 파스텔 색감이 두드러져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봄 가득 숲 속 케이크 2만9000원, 해피캐슬 3만3000원에 판매된다.

/장학선기자

봄날 러너 "가뿐한 비밀병기 모여"

기능성 운동화 쏟아지네

봄을 맞아 야외 운동에 필요한 기능성 운동화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는 빌리를 연상케 하는 컬러감의 에스 웨이브(S-WAVE)2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해 연자 워킹화로 불리며 이목을 끈 에스 웨이브의 2014년 버전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화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발 뒤꿈치 부분에 특수 미드솔 에너자이즈드 러버(Energized Rubber)를 사용해 쿠셔닝을 좋게 했다. 이 미드솔은 워킹화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색선 와일론(IP) 소재보다 약 1.5배 탄성이 좋아 강한 반발력으로 보다 편안한 워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중 구셔닝 시스템, 무봉제 공법인 퍼프 스크린(Puff Screen)을 적용해 착화감을 높이고 무게도 줄였다. 블루, 다크그레이, 라이트그레이, 아이보리오렌지, 핑크, 민트 등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워킹화 아치스텝 시리즈 6종을 출시하며 이벤트 마블 텔레톤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아치스테퍼(Arch Stepper)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벌인다.

아치스테퍼는 밀레가 건강관리 전문업체 녹십자 헬스케어와 협업해 도보 수, 소모 칼로리, 목표 달성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건강관리 기기다.

아치스테퍼 본사와 피쳐어 공식 모바일 앱도 선보였다. 기기와 앱을 연동시켜 권장 걸음 수와 권장 섭취 칼로리 및 소모량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아치스텝은 밀레가 지난 4일 새롭게 선보인 워킹화이며 중창에 삽입된 고탄성 소재 멤스가 탄성을 높여 건강한 도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아디다스와 리복이 일제히 신제품 러닝화를 선보였다.

아디다스의 스프링 블레이드는 6년의 제작기간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밑창에 하이테크 폴리머로 만든 16개의 고탄력 블레이드를 적용했다. 아디다스는 이 제품을 신으면 발밑에 스프링이 있는 것 같은 착용감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리복은 30~40대 직장인을 위한 러닝화 제트퓨즈 런을 출시했다. 고무창의 무게를 줄였고 나노웹(NanoWeb) 소재를 갑피에 사용해 통기성도 함께 향상시켰다. 또 솔기 없는 무봉제 갑피로 보다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김학철기자

매너 나쁜 구직자 절반 무조건 탈락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려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취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구직자에게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9.5%가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이들 중 45.4%는 취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구직자를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밝혔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입사 후 근무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서'(74.8%,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회생활의 기본이 안돼 있어서'(54.6%), '인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라서'(49.4%), '개인의 시회성을 드러내는 거라서'(33%),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서'(21.6%),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16.6%) 등의 순이었다.

취업 예절을 갖추는 것이 스펙 등 자격 조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54.7%)라는 응답이 '아니다'(36.7%)보다 더 많았다.

실제로 구직자의 비매너 행동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인사담당자도 86.3%에 달했다. 어들어 꼽은 최악의 구직자 행동은 '갑자기 면접 불참'(63.8%, 복수 응답)이 차지했다. '전형 중 갑자기 연락 두절'(48.1%), '통보 없이 들연 입사 포기'(40.5%) 등을 거론한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이국현기자 kcc@

15일 파고다평생교육센터 삼성그룹 SSAT 무료 특강

삼성그룹에 입사하길 원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파고다교육그룹 평생교육센터는 15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 파고다타워 7층에서 '2차 삼성SSAT 무료특강'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SSAT 강의 전 타임 15회 연속 마감을 기록한 취업계의 스타 강사인 이시한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SSAT의 출제 경향 및 최신 빈출 유형 분석은 물론 직무적성검사 파습 노하우도 들을 수 있다. 파고다어학원 홈페이지(www.pagoda21.com)에서 신청하면 선착순(300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시간적 문제 등으로 현장 특강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고다TV '특강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현기자

<토크 콘서트>

'김제동 토콘'도 이 남자 작품

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 임팩트' 한동헌 대표의 끼 넘치는 경영

"남들이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대학 교직원을 그만두고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평기 총명한 동료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홍철보다 활력 넘치고 참신한 돌아이 기질로 삭막한 현대인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겠습니다."

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의 채용 오디션이 열리는 강당. 면접자들의 7분 PT가 한창이었다.

임직원 50여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면접 평가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동헌(33·사진)대표는 "한 사람을 뽑더라도 모든 직원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지원자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대표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주제로 탄생한 마이크임팩트는 창업 4년 만에 1700회가 넘는 강연을 진행하며 110만 명이 넘는 청중과 호흡했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는 마이크임팩트 소속 강연자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작가 알랭 드 보통,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도 마이크임팩트 무대에 섰다. IT와 뷰티 등 단기 강좌인 '마이크임팩트 스쿨'은 자기 계발에 관심 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한 대표는 "강연 듣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 수업 빼먹고 몰래 강연을 들으러 다녔다"면서 "책과 달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좋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말했다. 또 "현대인들의 정신적 빈곤이 커지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적 허기를 채우려는 현상이 늘고 있다"면서 "대부분 '강연을 듣자'에서 시작해 '좋은 강연이면 돈 내고라도 듣자'에 이어 '나도 강연을 하고 싶다'란 꿈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지사에 들어갔다. 모두들 선망하는 회사였지만 강연에 대한 애기까지 채울 수는 없었다. 그는 회사원 신분으로 열정섬 강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김제동, 장기하 등 11명의 연사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한 대표는 "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사람들의 큰 호응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강연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인이라 강연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하려 했지만 여기저기서 비즈니스 업무 요청이 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비전과 콘텐츠의 힘인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직장 생활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2010년 마이크임팩트를 차렸다. 한 대표의 이야기를 전한 독지가가 자신이 소유한 종로 보신각 옆 건물의 한층을 1년간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나서 마이크임팩트는 종각역 역세권에 번듯한 사무실도 갖게 됐다.

한 대표는 "12층 50평대에서 시작한 마이크임팩트는 현재 11층, 12층, 13층, 옥상까지 사용하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임팩트는 19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지식 콘퍼런스를 준비 중이다. 역대 강연들의 디지털 콘텐츠 작업과 강남지점 추가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점점 나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느낀다"면서 "강연 문화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은희기자 urinus@metroseoul.co.kr

퇴사하고 싶다 / 취업하고 싶다

두드려도 사용된다 우리 힘으로 연다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

마이크임팩트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 계단에 붙은 문구는 직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손진영기자 son@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4)

청중 한 명에 질문하면 100명이 집중

성공적인 강의는 청중을 몰입시킨다.

청중을 끌어당기는 강의의 첫 단계는 시선 집중이다. W스피치 헬스로 명강사가 되기 위한 체험을 해봤다.

우선 인사를 크게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운을 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을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요즘 어떤 드라마 보세요?"라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운을 여는 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답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답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강의자가 특정 인물을 지목해 질문을 하는 것도 요령이다. 지목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게 되고, 주변에 앉은 청중까지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많이 들면 이해도는 높아진다.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 주인공이 재벌 2세였는데 요즘은 요리사, 전문직부터 외계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사례는 청중의 가깝게 접하는 내용일수록 유용하다. 강의 준비를 할 때 청중 분석도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다. 청중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감안해 강의를 준비하면 청중의 반응도 커진다.

강사의 옷차림과 제스처도 중요하다. 복장은 정장이 신뢰감을 주며 구두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강의를 하면서 움직일 때 청중들은 강사의 발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신발이 돋보이므로 단정하고 깔끔한 구두 착용이 신뢰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제스처는 클수록 자신 있어 보인다. 강연자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라면 제스처를 큼직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소리는 크고 힘이 있어야 한다. 강사가 자신 있어 보이면 청중은 내용을 떠나서 그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인식한다.

/lyn@

"촬영내내 하도 울어 살이 쏙 빠졌죠"

내일 개봉 '우아한 거짓말' 주연 고·아·성

배우 고아성(22)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주관이 뚜렷하다. 남의 시선이나 성공을 의식하지 않고 그만의 길을 걷는다.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설국열차'의 차기작으로 '우아한 거짓말'(13일 개봉)을 선택한 것 역시 그런 주관 때문이다.

◆ 이번 영화로 답답함 풀어

'설국열차'에서 열차에서 자란 소녀 요나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고아성은 이번 영화에서는 남에게나 가족에게나 무신경한 성격이지만 동생 천지(김향기)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감정의 변화를 겪는 여고생 만지 역을 맡아 섬세한 연기를 펼쳤다.

"요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독특한 캐릭터라서 연기하면서 답답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창 촬영을 하던 중에도 인상적이고 현실에서 공존하는 역할을 맡고 싶은 욕구가 커졌죠. 이번 영화에서 그때 느꼈던 답답함을 제대로 풀었어요."

'우아한 거짓말'에 모녀로 출연한 김향기(왼쪽부터)·김희애·고아성

받아들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아역에서 성인으로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은 피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누군가의 딸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진짜 엄마 같고, 연기를 할 때는 많은 가르침을 줬던 김희애와 호흡을 맞추는 일은 즐거웠다고 했다.

"촬영할 때나 집에서나 늘 따져봐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욕심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을까 하고 좌절하죠. 그럴 때마다 김희애 선배님이 다독여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줬어요. 한번은 연기와 관련해 제가 고민했던 오랜 착각마저 한순간에 바로잡아주셨죠. 한편으로는 연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진짜 엄마 같은 감정이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 아역배우 고충 안 겪어

극중에선 힘든 과정을 겪는 여고생이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대학생이다. 성균관대 심리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최근 MT를 다녀왔다고 말하며 눈을 빛냈다.

2006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대작 '괴물'과 지난해 900만 관객을 넘은 할리우드 프로젝트 '설국열차'로 베테랑 배우들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성공을 어린 나이에 경험했지만 자신을 여배우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학과도 또래 배우들이 주로 지원하는 연극영화과가 아닌 일반 학과에 진학했다.

"과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에요.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역배우 출신들이 겪는 고충에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동안 주로 어두운 역할을 맡았지만 말하는 모습은 씩씩하다. 그는 "다음에는 밝은 역할을 하고 싶다. 심리까지는 아니라도 씩씩한 인물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작은 바람을 내비쳤다.

배역에 몰입한 덕에 촬영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언니만 둘인 데다 아역배우 출신이라 일할 때나 집에서나 늘 막내였지만, 이번 영화를 촬영할 땐 있지도 않은 동생이 진짜 죽은 느낌이 들었단다. 우느라 살이 쏙 빠졌을 정도다.

"실제 성격은 발랄한 만지와는 정반대예요. 만지는 동생이 죽고 나서야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만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출연한 후로 언니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가족과는 다 솔직하게 공감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 김희애 선배는 연기 스승

'설국열차'에서 송강호의 딸을 맡았다면 이번에는 김희애의 딸로 나온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나이에 연이어 어린 딸 역을 맡은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에 그는 "난 성격이 과감함과는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생 잃은 여고생 역할
섬세한 감정연기 표현
김희애 선배 엄마 같아
:
아역→성인 이미지 변신
강박은 피하고 싶어요
씩씩한 캐릭터도 욕심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박은지

싸이·이승환… 스타 가수 '컴백 대란'

이달 줄줄이 복귀 예고… 성룡이 키운 아이돌 JJCC도 데뷔 무대

가요계에 부는 '봄바람'이 심상치 않다.

1월 걸그룹의 '섹시 대란', 2월 보이그룹 '퍼포먼스 대란'에 이어 3월에는 거물급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와 2NE1이 동시 컴백으로 3월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승환과 싸이가 컴백을 예고하고 있어 신구 세대 간 접전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걸그룹 포미닛은 오는 17일 미니 5집 '포미닛 월드'로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성룡이 직접 기획한 남성 5인조 아이돌 JJCC도 K-팝 시장에 뛰어든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수는 싸이다. 싸이 컴백 소식은 국내 가요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2012년 '강남스타일', 2013년 '젠틀맨'으로 각종 음원 차트는 물론 음원차트까지 점령했기 때문이다.

컴백 초읽기에 들어간 '월드스타' 싸이(왼쪽)와 17일 출시되는 포미닛 미니 5집 재킷

이승환은 지난달 23일 정규 11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3월 말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 2010년 발표한 10집 이후 4년여 만에 내놓는 앨범이다. 평소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뮤지션으로 정평이 난 만큼 음악의 완성도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겨냥해 성룡이 준비한 JJCC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20대 초반의 한국인 멤버 네 명과 중국인 멤버 한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JJCC는 평균 신장 180cm 이상의 화려한 비주얼과 체계적 트레이닝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겸비한 아이돌 그룹이다. JJCC는 이달 중 공식 데뷔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포미닛은 최근 공개한 티저로 소녀적인 감성과 섹슈미를 단기번에 내뿜으며, 섹시 카리스마의 아이콘으로서 귀환을 알렸다.

이에 3월 가요계는 경쟁 구도가 아니더라도 신구 세대들의 조화로 한층 풍요로운 가요 시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yoo@metroseoul.co.kr

동방신기 오리콘 일간 이어 주간차트도 1위

동방신기가 일본 오리콘 차트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웠다.

지난 5일 현지에서 출시한 새 앨범 '트리'는 발매 당일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주간차트에서도 정상에 등극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베스트 앨범 '베스트 셀렉션 2010', 정규앨범 '톤', '타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22만5000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톤'과 '타임'에 이어 정규앨범 세 장 연속 첫 주 2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는 종전 해외 그룹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본조비의 두 작품 연속 20만 장 돌파 기록을 13년10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오리콘은 11일 홈페이지 뉴스에서 "정규앨범 석 장이 연속해 첫 주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한 건 해외 그룹 사상 본조비가 '크러시', '바운스' 두 장의 앨범으로 세운 기록 이후 처음이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는 오리콘 싱글 부문에서도 주간 싱글차트 통산 12회 1위에 올라 일본 역대 해외 아티스트 중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정순호기자 sunc@

'튀는 인어공주' 오렌지캬라멜

싱글 '까탈레나' 음원 공개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닛 오렌지캬라멜(사진)이 인어공주로 변신했다.

오렌지캬라멜은 12일 세 번째 싱글 '까탈레나'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앞서 공개된 티저에서 오렌지캬라멜은 인어공주 차림을 하고 있지만 비닐 팩에 쌓여 있거나 초밥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등 독특한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다. 또 일부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선 개그맨 김대성(왼쪽)이 문어로 변신하고 정태호는 초밥집 손님 역할을 맡아 오렌지캬라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소속사 관계자는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립스틱'의 뮤직비디오 감독이 다시 한 번 연출을 맡았다"며 "이번에도 역시 오렌지캬라멜다운 코믹한 콘셉트다. 바닷가에 살던 인어공주들이 엉뚱하게 모든 게 어부에게 잡혀 수산시장을 거치고 초밥집까지 가게 되는 등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말했다.

이어 "섹시 걸그룹 콘셉트 홍수 속에 오렌지캬라멜은 약간 코믹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오렌지캬라멜 멤버 나나가 폭탄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나나는 함께 듀엣곡으로 입 맞추고 싶은 남자 아이돌이 있느냐는 질문에 "듀엣 말고 그냥 입을 맞추고 싶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지민기자 landkim@

오윤아 '너희들은 포위됐다' 캐스팅

배우 오윤아가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출연을 확정 지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빼어난 미모에 뛰어난 패션 감각과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닌 이형사 김사경을 연기한다. 집에 박힌 여형사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 하며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애쓰려는 인물이다.

또 서판석 역의 차승원과는 옛 부부 사이로, 오윤아가 강남서 형사과 실종팀장으로 부임하면서 형사과 강력2팀장인 차승원과 재회하게 된다.

오윤아는 "드라마 '미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합류하게 돼 쉴 시간이 없지만 너무 좋은 작품이고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출연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사경이란 인물을 통해 당당하고 멋진 여형사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여자로서도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승원, 이승기, 고아라에 이어 오윤아의 출연 확정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다음달 말 방영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이소라 6년만에 정규앨범 '8' 발표

가수 이소라(사진)가 6년 만에 여덟 번째 정규앨범 '8'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2008년 발표한 7집에 이은 정규 8집이며 총 8곡을 수록할 예정이다. 이소라는 지난 1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하고 '이소라 2014. 4. 8'이라는 자필 글씨와 간단한 그림이 담긴 쪽지를 공개하며 앨범 발표를 공식화했다.

또 '불과 그림'이 8집의 중대한 힌트로 알려지면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그림 속에 담긴 의미와 미스터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소라 측은 "이소라는 향후에도 공식 SNS를 통해서 앨범 수록곡들과 노랫말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음악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오는 13일부터 온·오프라인 음반매장들을 통해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김보오기자

8090 스타 '근대가요' 말하다

방자전 14일 첫방송

주병진·박미선 등 출연 '입담 자랑' 연예계 비화 파헤쳐

1980~90년대 연예계를 주름잡던 스타들이 뭉쳤다.

오는 14일 첫 방송 예정인 tvN '근대가요사 방자전'에서는 주병진·박미선·정원관·변진섭·김완선, 김태원 등 80~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스타들이 모여 각종 연예계 비화를 폭로한다.

'방자전'의 제작을 맡은 윤희원 CP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자전'은 '방송을 잘 아는 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약어"라며 "나훈아와 남진으로 대표되는 트로트 전성기를 '고대 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현대 가요'로 보고 그 사이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가요계가 꽃피우던 시절을 '근대 가요'로 정의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연예인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확인할 수 없는 루머는 입으로 전해졌고 일부 연예인들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루머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며 "'방자전'은 당시 떠돌던 소문의 진상 확인은 물론 사라진 스타들의 근황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은 약 2년 만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원조 국민 MC 주병진이 맡았다. 주병진은 "요즘 방송 트렌드에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이번엔 당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좀 더 자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 80~90년대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완선과 변진섭, 최초 아이돌 그룹 소방차의 정원관, 음악은 물론 예능까지 섭렵한 기타리스트 김태원과 데뷔 27년차인 개그계의 대모 박미선도 MC로 가세해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원관·박미선·주병진·김완선·변진섭·김태원(왼쪽부터)이 tvN '근대가요사 방자전'으로 뭉쳐 연예계 비화를 파헤친다. /CJ E&M 제공

/김지란기자 lanulsen@metroseoul.co.kr

시한부 총각' 오정세 '4차원 소녀' 김슬기

'나 곧 죽어'서 첫 연기호흡

배우 오정세(왼쪽 사진)와 김슬기(오른쪽)가 첫 연기 호흡을 맞춘다.

오정세와 김슬기는 오는 16일 방송되는 KBS2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4'의 6번째 작품 '나 곧 죽어'의 우진과 사랑 역으로 각각 캐스팅됐다.

'나 곧 죽어'에서 우진은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의 순간에 놓이게 된 인물이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자신의 젊음을 쏟았지만 늘 간발의 차로 낙방했던 우진은 실패로 얼룩진 청춘의 끝자락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35세 노총각이다.

오정세는 "드라마 스페셜의 많은 작품들이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재미뿐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피며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4차원 외계 소녀 사랑으로 출연한 김슬기는 "시청자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의 진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돈생돈사' 엄기준

'골든크로스'서 펀드매니저

배우 엄기준(사진)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남자가 되어 돌아온다.

엄기준은 KBS2 수목극 '골든크로스' 출연을 확정짓고 외모와 매너, 위트 삼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남으로 변신한다. '골든크로스'는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남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다.

극중 엄기준은 '석인 삶이'로 불릴 만큼 돈 버는 일에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펀드매니저 마이클 장 역을 맡았다. 준수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위트 있는 말솜씨로 뭇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마이클 장은 돈 때문에 몇천만원이 넘는 프랑스산 와인을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하는 '돈생돈사' 캐릭터를 연기한다.

'각시탈' '즐거운 나의 집' 등의 히트작을 집필한 유현미 작가와 '힘내요, 미스터 김' '메리는 외박중' '드라마 스페셜' 시리즈의 홍석구 감독이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골든크로스'는 '감격시대'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구성+영상+호연 '3박자' 갖춘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반전 노려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사진)가 시청률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정통 멜로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작품이 고전하는 데엔 경쟁작의 영향이 크다. MBC '기황후'는 기승냥(하지원)·타환(지창욱)·타나실리(백진희)를 둘러싼 궁중 로맨스의 암투로 역사 왜곡 논란을 잠재울 만큼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SBS '신의 선물-14일'도 타임워프라는 판타지 소재와 추리극이라는 부분을 앞세워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원·이보영·조승우 등 주연배우들의 연기 대상 경력이 있다는 점도 녹록지 않다. 반면 '태양은 가득히'는 한 남자의 복수를 그린 통속적인 내용으로 극의 재미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배우의 스타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11일 8회 방송으로 반환점을 찍은 '태양은 가득히'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감상적인 영상미, 배우들의 몰입도 있는 연기로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청자 게시판에는 "출연력 있는 최고의 드라마" "슬퍼서 더 아름답다. 시청률 어떡가 안 된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박경수 PD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진이 그리는 그림과 대중들의 평가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드라마의 숨겨진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효진기자 jeonhk@

전현무 파일럿 프로 '연애고시' MC 맡는다

방송인 전현무(사진)가 MBC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나선다.

11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전현무는 MBC의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연애고시-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가제·이하 '연애고시')의 MC로 발탁됐다.

'연애고시'는 연애에 매번 실패하거나 또는 연애가 너무 어려워 연애조난자라 불리는 연예인들을 위한 솔로 탈출 프로젝트다. 비주얼과 스펙을 모두 갖췄지만 반쪽을 찾지 못해 솔로로 지내고 있는 연예인들이 고시생이 돼 연애고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애고시'에서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남녀 매칭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남녀의 심리를 알아보는 시험을 통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출을 맡은 문경태 PD는 "'연애고시'에서는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이상형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MC로는 애드리브와 입담이 좋아 출연자와 MC들 간 쌍방향 소통이 좋은 전현무가 적격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무는 '연애고시'를 통해 방송계의 1인자들과 맞붙게 됐다. 이미 유재석과 강호동, 신동엽 등 쟁쟁한 MC들이 봄맞이 파일럿 프로그램 론칭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연애고시' 제작진은 전현무 외에도 젊은 피를 더 수혈해 대형 MC들에 맞선다는 복안이다.

'연애고시'는 다음달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박수진, 김수현·김현중과 한솥밥

배우 박수진(사진)이 키이스트와 계약을 맺고 배용준·김수현·김현중 등과 한솥밥을 먹는다.

11일 키이스트는 박수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초한 외모와 함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박수진은 2007년 KBS 드라마 '칼잡이 오수정'에서 주인공 오수정(엄정화)의 고등학생 시절을 연기하며 당당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후 드라마 '꽃보다 남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tvN '이웃집 꽃미남'에서 허당기 다분한 귀여운 악녀 차도휘로 변신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현재 박수진은 케이블 올리브의 대표 맛집 탐방 프로그램 '2014 테이스티 로드'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ysw@

류승룡 '표적'서 강렬한 액션

배우 류승룡(사진)이 자기작 '표적'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배우로 변신했다.

CJ 엔터테인먼트는 11일 "'표적'의 개봉을 다음달 30일로 확정 지었다"고 밝히며 극중 스틸과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위험한 동행을 하게 된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두 형사가 펼치는 36시간 동안의 숨 막히는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공개된 스틸과 예고편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돼 쫓기고 있는 여훈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류승룡은 체중을 감량하고 위험천만한 액션 연기를 펼치는 등 역할에 몰입해 매 장면을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7번방의 선물'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까지 다양한 연기를 펼쳤던 그는 이번에는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박은희기자

논스톱

폼페이: 최후의 날

300: 제국의 부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반격

'300: 제국의 부활' 1위 질주… 흥행 톱5에 3편 포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융단 공세로 극장가를 점령했다.

'300: 제국의 부활'이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85만8484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10일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논스톱'(누적 관객 수 150만2910명)과 '폼페이: 최후의 날'(누적 관객 수 132만854명)도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나 가능한 화려한 볼거리를 앞세워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규모 해전을 다뤘고,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은 도시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일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리암 니슨의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 '논스톱'은 비행기 안의 테러 상황을 그렸다.

20일에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 '노아'가 개봉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제작진은 다양한 복제 동물 모형을 제작하고 8만5000ℓ의 물탱크 5개를 마련하는 등 화려한 특수 효과와 물량 공세로 대홍수를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반면 지난겨울 각각 1000만 관객과 800만 관객을 넘은 '변호인'과 '수상한 그녀'로 활황기를 맞았던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쏟아지자 주춤한 모양새다.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 '수상한 그녀'(3위), '찌라시: 위험한 소문'(5위), '관능의 법칙'(10위) 등 단 세 편만이 올라있다.

이처럼 외화가 강세를 띠고 한국 영화가 약세를 띠는 현상의 배경은 개봉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화 배급사 관계자는 "3월은 전통적으로 영화계의 비수기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현재 개봉 편수가 적고 4월 이후부터 개봉 대기 중인 대작들이 몰려있다"면서 "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올해 예년보다 개봉 시기를 앞당겨 관객이 외화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은희기자 ssk0427@metroseoul.co.kr

"일탈의 매력 다가왔다"

'가시' 장혁 체육교사 역 — 조보아 "격정적 러브신 설레"

배우 장혁이 영화 '가시'로 색다른 역에 도전하는 소감을 밝혔다.

극중 한 소녀에 대한 설렘으로 파멸로 치닫는 체육교사 준기 역을 맡은 그는 11일 서울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식인 역할을 맡았다"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설렘을 느끼고 끝내 파탄하는 부분이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학생 시절에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당시에 썼다는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는 제목의 시를 읊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준기에게 사랑을 느낀 소녀 영은 역을 맡아 장혁과 격정적인 멜로 연기를 펼칠 신인 조보아는 "러브신이 격정적인 부분이 많아 부담됐지만 촬영을 하면서 은근히 설레는 감정으로 편하게 행복하게 촬영했다"고 털어놨다.

13년 전 '화산고'로 장혁과 호흡을 맞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다음달 10일 개봉한다. /박은희기자

11일 합정동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영화 '가시'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장혁(왼쪽)과 조보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가박스 전 좌석 가죽시트로

메가박스가 전 지점 상영관에 가죽 시트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메가박스는 코엑스점 M관을 리뉴얼하며 가죽 시트를 도입한 이래로 코엑스점 프리미엄관을 비롯한 리뉴얼 상영관이나 신규 설립된 지점에 가죽 시트를 설치해왔다. 천 시트 위주의 영화관 좌석을 가죽 소재의 좌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전국 지점에 적용할 계획이다.

메가박스 공간기획팀 김계호 과장은 "가죽 시트가 천에 비해서 단가도 높고 전체 좌석 변경에 투자될 비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처음 도입한 이후 청결한 위생 관리면에서 이점을 보이고 관객들의 선호도도 높아 장기적인 교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죽 시트는 현재 코엑스점 M2관, 프리미엄관(3~5, 6~11관), 백석점 M관과 테이블 M관, 구미점 전체 상영관에 도입됐다. 다음달 초부터 분당점과 천안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윤시윤·여진구 '백프로' 늦깎이 개봉

배우 윤시윤(사진 오른쪽)과 여진구(왼쪽) 주연의 영화 '백프로'가 촬영 완료 3년 만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11일 제작사 시네마제니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다음달 3일로 개봉 날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시윤과 여진구는 3년 전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백프로'는 유명 프로골퍼로 이름을 날리던 백세진(윤시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섬마을 학교를 구하기 위해 악동 이병주(여진구)와 순박한 아이들을 만나 좌충우돌하는 얘기를 그린다.

윤시윤의 해병대 자원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윤시윤과 여진구를 비롯해 박상면·천호진·이경영·여범준·이원종 등이 출연한다. /박은희기자

오슬로의 겨울처럼 오싹

북유럽 스릴러 열풍 주도 '제2 라르손' 네스뵈 신간 스스로 "최고 플롯" 꼽아

네메시스 | 요 네스뵈/비채

전 세계는 지금 북유럽 스릴러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범벅이기보다는 서늘한 공포를 주는 사건들, 기나긴 겨울과 끝없는 눈의 섬뜩함, 선하지 않지만 지적인 주인공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북유럽 스릴러 열풍의 시작이었던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1부작은 30여 개국에서 6000만 부 이상 팔렸고 대니얼 크레이그가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도 성공을 거뒀다. 소설 외에도 덴마크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더 킬링'과 아이슬란드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콘트라밴드'도 미국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핫'한 북유럽 스릴러 작가는 누구일까. 바로 북유럽 스릴러의 자존심, '제2의 스티그 라르손' 등 화려한 별칭을 달고 다니는 요 네스뵈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릴러 작가인데 그가 최근 해리 홀레 시리즈 4번째 작품인 '네메시스'를 출간했다.

책은 저자 스스로 "모든 것이 이 한 컷에 달려 있으며 남은 이야기 전부를 지배할 첫 장면을 쓰고자 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다들 삶의 의미를 궁금해할 뿐, 어무도 죽음의 의미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총구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직감한 인물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책은 오슬로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돼 왔었고 범인은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에서 돈을 챙긴 범인이 창구 직원을 쏘는 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을 맡은 형사 해리 홀레는 이 불필요한 살인에 주목한다. 하지만 해리는 옛 여자친구 안나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가 이튿날 그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자 사건의 용의자가 된다.

이처럼 저자는 은행 강도 사건과 예전 여자친구의 자살이라는 두 사건을 번갈아 진행하며 주도면밀한 이야기를 구축해나간다. 이전의 어떤 작품보다 플롯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저자가 자신의 작품 가운데 플롯이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꼽기도 한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듭되는 반전의 반전은 독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담하고 정교하게 그려진다.

/정혜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리브랜딩, 부상당한 뉴욕을 살린 심폐소생술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지옥같던 NYC가 후반 들어 관광의 천국이 된다. 아이러브 뉴욕(I♥NY)이 첫번째 브랜딩이었다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의 재건은 리브랜딩이다. 이제 더 이상 맨해튼 금융지구는 비즈니스맨들의 거래소가 아닌 선글라스를 낀 이방인들의 관광 명소가 됐다. - '뉴욕 비즈니스 산책'(김선일/한빛비즈) 중 - /김학철기자 [illegible]

야한 남자 마광수 '19금 아라비안나이트'

화제의 책

아라베스크 | 마광수/책읽는귀족

'아라베스크'는 마광수 작가의 신작 같지만 책은 오래된 아픔과 사연, 저자의 애정을 담고 있다.

1992년 봄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기 시작했지만 같은 해 10월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으로 저자가 구속되면서 소설의 연재가 허무하게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수감 생활을 마친 1997년 후속편을 연재해 탈고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소설을 하나의 책으로 출간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작품이라 저자는 재출간을 결심했고 이에 가장 재미있고 독야하며 날렵한 이야기만 모아 '아라베스크'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저자가 직접 내용을 다시 한 번 손보며 '황골탈태'라는 뜻을 담아 제목도 아라베스크로 고쳤다.

독히 책에서는 이 [illegible]한 소설가 마광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야하지만 생각이 있는 풍경, 판타지의 신세계가 펼쳐지며 날카로운 풍자적 종자와 세상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동서양의 역사와 지식의 뒤안길에 숨어있는 이중적 캐릭터임을 파헤치는 저자의 모습과 이를 비판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상력의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 있다. 팍팍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잠시 쉬어가며 저자가 얘기하는 '가벼움의 미학'과 '솔직한 판타지의 구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성(性)의 아이콘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마광수식 아라비안나이트에 빠져보자. /유계풍기자 [illegible]

새로 나온 책

교육

교사, 입시를 넘다 | 유세희 외/우리교육

인문 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있는 강사 7명이 우[illegible]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철학, 새로운 교육의 가치를 얘기한다. 또 책은 강사들의 이런 얘기를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사교육을 바로 잡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미

리빙포인트 | 조선일보 리빙포인트 취재팀/시대북스

1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주부 9단도,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는 초보 주부에게도 살림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 이에 책은 누구나 살림 고수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살림 기술을 담고 있다. 살림이 쉬워지는 깨알 같은 노하우를 만나보자.

경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 벤 버냉키/미지북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냉키가 미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했던 [illegible]연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연방준비제도 [illegible]설에서부터 연준의 역사와 역할을 돌아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냉키 의장 자신이 펼쳤던 양적완화 정책 등 독특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치사회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 루크 하딩/프롬북스

전직 CIA/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 도청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감행한 [illegible] 이후의 행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치열한 정보 전쟁과 언론의 타격 과정이 소설처럼 쉽게 읽히지만 스노든이 던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가 크다.

인문

평설 인물 삼국지 | 김재헌/왜고전

나관중의 삼국지 속 인물들을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삼국지가 유비의 촉한이 한나라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입장에 따라 역사와 인물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비는 조폭 출신 야심가로, 관우는 살인범에서 신이 된 남자로, 조조는 충신으로 설명하는 등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다.

자기계발

무심코 좋은 생각 | 고야마 군도/비즈니스북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저자 고야마 군도는 말한다. 인생에서 놓쳐버린 우연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며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에세이

시계, 남자를 말하다 | 이윤경/책이있는풍경

국내 여성들이 선호하는 수입 화장품 매출 신장률이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성들을 위한 브랜드 시계 매장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날로그 시계에 대한 남성 수요가 많은데 도움받을 시계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그간 모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기계식 시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건강

강한 것이 아름답다 | 노먼[illegible]/[illegible]북스

사진보다 글이 많은 운동 책이다. 여성 초보자부터 운동지도자까지 저자가 수 저지르는 실수를 [illegible] 및 상황별로 나누고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좋은 자세'보다 '나쁜 자세'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다. 혼자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자습서이자 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교본이 될 것으로 저자는 기대한다.

역사

아프리카를 말한다 | 류광철/세창미디어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확실한 전망의 대륙이다. 현재 주짐바브웨 대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두 자리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아프리카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metrosports

프로야구 '부상 경계령'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8일 개막된 가운데 각 구단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시범경기 첫날부터 주축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한 해 농사를 위해 몸 만들기에 노력했던 선수들의 부상은 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다.

경기 도중 타구에 정강이를 맞은 김진우(31·KIA 타이거즈)가 특히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IA 선동열 감독은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 앞서 "(김)진우가 미세 골절이 의심돼 X레이를 찍었으나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SK 와이번스 정상호가 삼성 라이온즈 나바로의 배트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정상호는 대구 삼성전에서 선발 포수로 나서 김광현과 배터리를 이뤘다. 이후 힘 없이 잘 진행된 경기에서 정상호가 나바로 타석 때 갑자기 쓰러졌다. 3회말 나바로가 김광현의 공에 크게 헛스윙을 한 뒤 다시 배트를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정상호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다. 정상호는 잠시 쓰러져서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다가 다시 일어나 마스크를 썼다. 4회말 수비 때 이재원으로 교체됐다.

한편 롯데 내야진 박기혁은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됐다. 지난 6일 SK 와이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수비 도중 타구에 오른쪽 검지 골절상을 입은 박기혁은 수술을 받고 두 달가량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다. /정성훈기자

박인비 "맹호장 수상은 가문의 영광"

골프 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시즌 첫 우승과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1일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박인비에게 맹호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승(메이저 3승)을 거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박인비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이날 박인비는 "아버지가 모범 납세자 상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집안에 훈장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다"면서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신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한 후 훈장을 들어 보이고 있는 박인비. /연합뉴스

지난해 4월부터 세계 랭킹 1위를 달리며 여자 골프 판도를 주도한 박인비는 9일 막을 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올해 첫 승을 기록했다.

박인비는 "시즌 첫 승을 생각보다 빨리 거둬 기쁘다"면서 "우승하고 좋은 상을 받는 경험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곧장 미국으로 떠나는 박인비는 20일부터 열리는 파운더스컵을 시작으로 8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지금까지 치른 경기는 미국 본토를 위한 전초전이었다"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으니 미국에서 시작 적응을 잘하면 다음주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성훈기자

지소연 4도움… 여자축구 키프로스컵 3·4위전

지메시'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의 맹활약으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14 키프로스컵 국제대회 3·4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지소연은 11일 키프로스 파랄림니 타소스마르코 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2014년 키프로스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대표팀의 네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다. 뉴질랜드를 4-0으로 격파한 한국은 조별리그 전적 1승2무로 3·4위전에 진출했다. 스코틀랜드와 오는 12일 3위를 놓고 대결한다. /정성훈기자

프로배구 전적 11일

흥국생명	2	3	도로공사
대한항공	3	0	LIG손해보험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AP연합

류현진 더 견고해졌다

오클랜드전 5이닝 1실점 4K '인상적 투구'… 홈런 맞고도 흔들리지 않아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이 세 번째 시범경기 등판에서 호투를 이어가며 23일 호주 원정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류현진은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1실점했지만 탈삼진 4개를 잡아냈다. 70개의 공으로 5회를 매듭지는 안정적인 바운드 운영이 돋보였다. 다저스는 8-3으로 앞서가던 8회 5점을 내줘 8-8로 비겼다.

단 한 개의 실투가 담장을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4-0으로 앞선 5회초 오클랜드 선두 타자 마이클 테일러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렸다. 타구는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그러나 류현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두 명의 타자를 땅볼과 삼진으로 잡아낸 뒤 잠시 제구가 흔들린 류현진은 제이크 엘모어에게 이날 첫 볼넷을 허용했다. 릭 허니컷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류현진은 '더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류현진은 기습 번트를 시도한 닐리 번스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에 던져 5회를 마무리했다.

류현진의 구위와 안정감을 확인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만족한 표정으로 더그아웃으로 들어온 그의 등을 두드렸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호투를 펼친 류현진은 시범경기 평균 자책점을 3.00에서 2.45로 끌어내렸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인 류현진은 17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시범경기에 마지막으로 등판한 뒤 23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개막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한다.

/정성훈기자 yjw@metroseoul.co.kr

최강희 "자신만만… 목표는 우승"

오늘 멜버른 빅토리와 AFC 챔스리그 조별 2차전 – 울산은 가와사키와 '한판'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서는 울산 현대, 전북 현대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다.

11일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은 호주 멜버른의 도크랜드 스타디움에서, 울산 현대 조민국 감독은 울산 현대호텔에서 경기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1강 후보 전북 현대의 최 감독은 G조 2차전(한국시간 12일 오후 5시30분)을 앞두고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감독은 "멜버른 빅토리는 미드필더와 공격진에 좋은 선수가 많다"며 "8일 K리그 경기를 치르고 장시간 이동하느라 선수들이 피곤한 상태여서 체력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늘 누가 웃을까? 최강희(오른쪽) 전북 현대 감독과 케빈 머스캣 멜버른 빅토리 감독이 1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도크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 26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하고 지난 8일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도 3-0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팀이 자신감을 얻고 상승세를 타고 있어 내일 선명히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며 "올 시즌 목표는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2차전 경기를 하루 앞두고 "홈 첫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합"이라며 "승점 숫자를 늘려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와사키는 스루패스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포항 스틸러스와의 개막전 때문에 많이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프로 데뷔 후 첫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조민국 울산 현대 감독이 공격적인 플레이로 홈 팬들 앞에서 3연승을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과 가와사키의 경기는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 /정성훈기자

현대증권,
단 한 장의 카드로 세상 카드를 압도하다!
현대증권
able Card
able
15% 할인부터
포인트 적립과
캐시백까지